

2023/10/7 ~ 12/3

특별전

도후쿠지 감상가이드

교토를 대표하는 선종 사찰,
도후쿠지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올가을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아, 도후쿠지는 단풍 명소라구요?
도후쿠지라는 역 이름도 있대구요?

맞아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 다이 지
東大寺
교 후쿠 지
興福寺
도 후쿠 지
東福寺



아기 이름
짓기?



언제, 누가 만든 절일까요?

제1장 도후쿠지의 창건과 승려 엔니

도후쿠지 절은 엔니라는 스님이 세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종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13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구조
미치이에의 요청으로 도후쿠지 절을 세웠고, 일본에서
제일가는 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라에 있는 대사찰
도다이지 절과 고후쿠지 절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도후쿠지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도후쿠지 절에는
천재지변과 전란을 견딘 많은 보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도후쿠지 절에는
국보가 7점,
중요문화재가 98점이나 있어요!



중요문화재 | 엔니 초상(부분)
가마쿠라시대 13세기 | 도후쿠지 절 소장(전반기 전시)



중요문화재 | 무존사범 초상(부분) | 시코 찬
중국 남송시대 보우 2년(1254) | 도후쿠지 절 소장(후반기 전시)

엔니 스님의 중국 스승!
표정이 정말 리얼하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2 쇼이치파?

↗
뒷면에 계속

제2장 쇼이치파의 형성과 전개

옆에 아저씨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



쇼이치파는 엔니 스님의 뒤를 이어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엔니 스님처럼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을 배우거나 중국에서 유행하던
물건과 지식을 일본에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도후쿠지 절에는 스님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린 초상이나 조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스님들이 입는 가사나 일상생활 도구들도 많아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오! 손에 불자를 쥐고 있네.
○○ 불자?

동물의 털이나 삼 등을 묶고 거기에 자루를
붙여 만들어요. 옛날 인도에서는 벌레를
쫓아낼 때 사용했는데 중국 선종에서는
스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나 의식을 행할
때 쓰던 도구였어요.



3 전설의 화가!

제3장 전설의 승려 화가, 민초

민초(1352-1431)는 도후쿠지 절에서 대활약한 전설의 화가입니다. 그림 그리기에 한 평생을 바친 스님 화가입니다. 에도시대까지는 그 유명한 셋추라는 화가 못지않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절에서 그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르침을 전하는 일과 같았지요.

민초는 먹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써서 파워풀한 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오백나한 그림 10명 x 50점 = 500명



중요문화재 | 오백나한 | 깃산 민초 그림 | 남북조시대 시토쿠 3년(1386) 도후쿠지 절 소장 ※도쿄국립박물관 전시 풍경

잠깐! 작품 설명

전시실에서 오백나한을 찾아보세요. 세로로 긴 장황에 아저씨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 하하! 아저씨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나한'이라고 해서 엄청난 수행을 통해 특별한 경지에 오른 스님들입니다. 이 오백나한 그림은 민초가 젊었을 때 그린 대표작이에요. 그림 한 장에 나한을 열 명씩 그렸는데 그 그림이 모두 50점이라서 '오백나한'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14년에 걸쳐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50점(제1호-제50호) 모두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48, 49호 그림은 도쿄 네즈미술관 소장, 제46, 47, 50호 그림은 민초 시대보다 뒤에 제작되었거나 모사된 작품입니다.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오백나한 그림 속 나한들을 잘 보세요.

표정도 다르고 어딘가 모르게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전시실에 전시 중인 작품 옆에는 만화처럼 말풍선에 대사를 쓴 패널이 있습니다. 박물관 연구원이 상상해서 만든 대사예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말풍선, 여러분도 한번 직접 채워보세요!

오백나한 그림은 50점을 조금씩 나눠서 돌아가면서 전시합니다. 오른쪽 작품은 10월 24일(화)-11월 5일(일)에 전시실에서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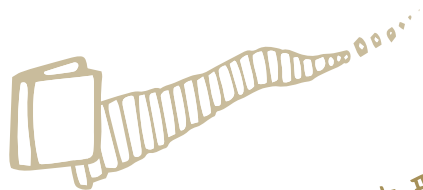


중요문화재 | 오백나한 제17호 깃산 민초 그림 | 남북조시대 시토쿠 3년(1386) 도후쿠지 절 소장

4 해외 문물과의 만남

제4장 선종 문화와 해외 교류

중국에서 선을 공부한 엔니 스님은 많은 책과 물건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백과사전도 엔니 스님이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려 100권도 넘지요. 하늘과 땅, 정치와 경제, 병, 약과 음식, 자연 속 동물과 식물, 광물까지 온갖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도후쿠지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해외 교류는 엔니 스님의 제자들(쇼이치파)에게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후쿠지 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문물이나 자료도 남아 있지요.



백과사전

100권 이상!

굉장하다!



하늘 편

동물 편

요리 편?

인간사 편



5

도후쿠지는 뭐든 큼직큼직하지

제5장 거대 가람과 불교 조각



전시실에서 커다란 왼손을 찾아보세요. 성인의 키보다도 크답니다.
이것은 도후쿠지 절의 본존이었던 석가여래좌상의 일부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에 타버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불상이었을 거예요.
이 불상이 보여주듯 도후쿠지 절은 건물도 일상에서 쓰는 도구도 다~ 특대 사이즈랍니다. 조각도 서화도 공예품도, 도후쿠지 절이 소장하고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큼직큼직해요. 선종 사찰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도전! 퀴즈~

옛날 도후쿠지 절에 있었던 이 손의 주인.
과연 그 불상의 높이는 몇 미터였을까요?

- ① 3미터
- ② 10미터
- ③ 15미터

전시실에서 실제로 작품을 보면 감이 올지도 몰라요!

힌트
00



마치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후쿠지 절에서 지키고 전해내려 온 문화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많은 보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 전시실에 오셔서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퀴즈 정답

3 15미터

MAP



중요문화재 | 이천왕 입상 가운데 흉형 가마쿠라시대 13세기 | 도후쿠지 절 소장



특별전 도후쿠지 2023년 10월 7일(토)-12월 3일(일)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주최: 교토국립박물관, 대본산 도후쿠지, 요미우리신문사, NHK교토방송국, NHK엔터프라이즈 긴키

관람요금·오시는 길·휴관일 등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京都国立博物館
KYOTO NATIONAL MUSEUM

[주요 전시 교체]
전기 전시: 10월 7일(토)-11월 5일(일)
후기 전시: 11월 7일(화)-12월 3일(일)
※ 전시 기간 동안, 일부 작품은 위 기간과 다른 시기에 전시 교체를 실시합니다.

특별전 공식 웹사이트 <https://tofukuji2023.jp/>

교토국립박물관 웹사이트 특별전 <도후쿠지>

527 Chaya-cho, Higashiyama-ku, Kyoto, Japan 605-0931 TEL: 075-525-2473 (텔레팩 서비스)

https://www.kyohaku.go.jp/ko/exhibitions/special/tofukuji_2023/

